

삼성, 한비 인수 본격화

지원팀 구성 실사활동 ... 한국비료 노동조합 항방 관심

삼성그룹의 한국비료 인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7월18일 경영권을 인수한 후 95년3월 주총 이전까지는 한국비료의 현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최근 비서실 직원을 주축으로 한 지원팀을 구성해 8월1일부터 한국비료에 대해 실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지원팀은 기획·실사·법무·노무 등 4개팀 14명으로 구성돼 서울사무소와 울산 공장에서 8월1일부터 실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실사기간은 당초 2개월로 예정돼 있으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실사는 현황을 파악한 뒤 장기 계획수립의 근거마련 및 조기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현재 큰 마찰은 없으나 실사팀중 노무팀의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명목상 「노사 협의회」가 구성돼 있을 뿐 실질적인 노동조합이 없는데 반해 한국비료는 임직원 600여명중 430 명이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삼성이 한국비료의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있으며 삼성은 현재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비료 노동조합과 실사팀을 통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비료 노동조합은 경영권이 삼성으로 넘어가더라도 현조합을 유지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삼성측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이 7월19일 한국비료주식의 재입찰 직후 밝힌 한국비료의 중장기 계획에는 비료사업에 대한 언급은 배제한채 정밀화학부문의 집중투자를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비료산업의 확대 없이는 정밀화학의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비료 서울사무소는 현재의 역삼동에서 조만간 태평로 삼성타운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15일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요소공장의 추출탑 붕괴는 일본의 기술진에 의해 조사중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기보수중 시운전 과정에서 튜브파열로 높이 30m의 추출탑이 압력차이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화학저널 1994/9/5>